

황종우 해수부 장관, 아덴만 출정 '청해부대 48진' 격려

- 아덴만·소말리아 해상 안보 위협 속 성공적 임무 수행과 무사 귀환 당부 -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5일(금),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해군 작전 사령부를 방문해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 임무 수행을 위해 아덴만·소말리아 해역으로 출정하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(함장 안우진) 부대원들을 격려하였다.

황 장관은 48진 환송식에서 최근 중동의 불안한 정세와 아덴만·소말리아 해적 위협 등 임무를 수행할 해역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, 우리 선박과 국민 보호를 위해 출정하는 청해부대에 감사를 전하며, 성공적인 임무 완수와 장병들의 무사 귀환을 당부하였다.

황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“조국과 영토를 수호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로 우리 선박들을 지켜주고 안내하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”며, “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임무 수행으로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충성이요 애국임을 꼭 기억해 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
청해부대는 2009년 3월부터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호송 및 다국적 연합함대와 함께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작년 12월에 출항한 47진 대조영함에서 해당 임무를 수행 중이다.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인수 (044-200-5850)
		담당자	사무관	서지만 (044-200-5851)